

JUVENILE TITLES

FICTION

제목 : THE OTHER ALICE
가제 : 또 한 명의 앨리스
저자 : Michelle Harrison
출판사: Simon & Schuster Childrens Books
발행일: 2016년 7월 28일
분량 : 352 페이지
장르 : YA 소설



타고난 이야기꾼 앨리스, 완성하지 못한 소설만 남기고 홀연히 사라진 후 시작된 이상한 일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책상 앞에 앉아서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다. 유명한 소설가를 꿈꾸는 그들의 뜨거운 열정만은 똑같겠지만, 어떤 결과로 이어지느냐는 제각기 다르다. 열심히 쓴 글이 멋진 작품으로 완성되어 책으로 만들어지고 다른 언어로도 번역이 되어 전 세계 방방곡곡에 있는 서점에 놓이는 경우가 있는가 하면, 첫 장, 심할 때는 첫 줄 이상 이야기가 진전되지 않아 작가가 몇 날 며칠을 끙끙대다가 스스로 뒷이야기는 포기해버리는 경우도 있다. 열한 살인 밋치에게는 그 점에 있어서 누구보다 철저한 원칙을 고집하는 이야기꾼 누나가 있었다. 다섯 살 많은 누나 앨리스는 기막힌 줄거리를 떠올리고 생생한 인물들을 만들어내는 재주도 보통이 아니었지만, 한 번 시작한 이야기는 반드시 끝을 내야 한다는 자신만의 엄격한 규칙을 무조건 지키는 사람이었다. 끝맺지 못한 이야기만큼 끙끙한 건 없다고, 그 미완성된 이야기 속에서 인물의 꿈은 이루어지지도 못하고 인물의 삶도 중도에 멈춰버리고 만다고 누나는 늘 이야기했다. 그래서 아주 엉뚱하고 시시한 결말이 될지언정 앨리스는 무조건 이야기를 끝까지 쓰는 버릇이 있었다. 아주 어릴 때부터 누나가 들려주는 이야기를 들으며 자란 밋치는 누나가 완성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감상할 수 있는 것을 가장 큰 즐거움으로 여겼다. 아버지가 다른 이복 남매지만 늘 서로를 아끼던 남매의 단란한 일상은 2월의 어느 금요일에 끝이 나고 말았다. 앨리스가 어딘가로 사라져 버린 것이다.

분명 전날까지 같이 이야기했던 누나가 다음 날 아침 사라져버린 것도 모자라, 누나 방에서 사람 말을 할 줄 아는 고양이가 나타난다! 당황한 밋치는 일단 누나부터 찾자는 생각에 가장 먼저 노트부터 뒤진다. 늘 이야기를 쓰는 앨리스가 최근에 쓰던 소설에서 뭔가 단서가 나올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였다. 첫 페이지부터 읽어가던 밋치는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을 느낀다. 누나가 쓰다 만 그 이야기는, 그저 종이에 펜으로 쓴 단순한 글이 아니었다. 문득, 누나가 사라지기 전날에 밋치에게 말했던 이상한 이야기가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다.

노트에서 튀어나온 소설 속 인물들, 거리를 활보하는 악당들을 막으려면 소설의 결말이 필요하다!

전날 학교에서 돌아온 밋치를 반갑게 맞이해준 누나는 지금 쓰는 소설이 이제껏 썼던 어떤 작품보다 애정이 가고, 가장 열심히 썼는데 결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도통 떠오르지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자신이 쓴 이야기가, 어쩌면 실제로 위험한 일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묘한 말을 덧붙였다. 그 때는 누나의 말을 이해할 수 없었지만, 이제 느낄 수 있었다. 앨리스의 소설에는 마법이 감추어져 있었다.

그 사실을 증명하듯, 밋치는 소설 속에 등장하는 두 명의 인물이 동네를 활보하고 다니는 모습을 목격한다. 앨리스와 외모가 아주 흡사한 여행가로, 말을 못하는 소녀 집시와 미스터리한 소매치기 파이프가 딱 하니 실존 인물로 나타난 것이다! 그리고 파이프가 가진 담배 파이프는 소설 속 설정처럼 정말 이상한 기능이 숨겨져 있었다. 두 사람에 이어 소설에 등장하는 사악한 악당들까지 하나 둘 노트에서 벗어나 현실 세계에 나타나면서, 밋치와 집시, 파이프는 곤란한 상황에 봉착한다. 셋이서 어떻게든 머리를 짜내어 이 미완성된 이야기의 끝을 찾아야 한다. 무엇보다 앨리스가 어디로, 왜 사라졌는지 알아내야 한다.

<저자 소개>

미셸 해리슨(Michelle Harrison)은 워터스톤 출판사에서 영업 업무를 담당하다가 옥스포드 대학교 출판부에서 보조 편집자로 일했다. 현재는 전업 작가가 되어 글 쓰는 일에 전념하고 있다. 데뷔 소설 『THE THIRTEEN TREASURES』는 ‘워터스톤 어린이 도서 상’을 수상하고 영국을 포함한 전 세계 17개국에 판매됐다.

제목 : HOW TO UPDATE YOUR PARENTS

가제 : 엄마아빠 업데이트하는 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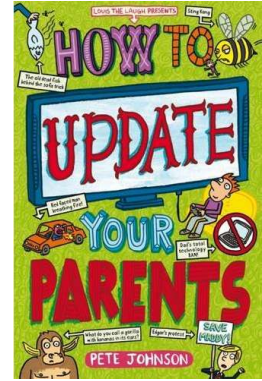
저자 : Pete Johnson

출판사: Award Publications Limited

발행일: 2016년 6월 16일

분량 : 224 페이지

장르 : YA 소설



꼬마 때부터 남다른 개그감각을 자랑해온 개구쟁이 소년이 펼치는 폭소 유발 일상 대 모험

“유니콘은 자기 아빠를 뭐라고 부를까요?” “팝콘!” 겨우 네 살 때부터 이런 실없는 농담으로 가족들을 배꼽 잡게 만들던 루이스는 잘나가는 코미디언을 꿈꾼다. 그러나 메디라는 푹 부러지는 여자친구 덕분에 거의 코 앞까지 다가왔던 그 꿈은 컨디션 조절에 실패한 바람에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하지만 비극은 그게 다가 아니었다.

루이스는 메디의 소개로 재능 있는 어린이를 발굴하는 TV 경연 프로그램에 도전장을 냈다. 어릴 때부터 매일 갈고 닦은 개그 실력을 마음껏 뽐낸 덕분인지, 루이스는 최종 결선까지 승승장구했다. 경연에서 우승하면, 자신의 이름을 내건 30분짜리 개그 쇼가 크리스마스 이브에 전국에 방영되는 엄청난 기회를 얻게 된다! 가족들과 메디의 응원에 힘입어 루이스는 결승전이 벌어지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 연습을 거듭했다. 마침내 다가온 결승 당일, 루이스는 아침부터 몸 상태가 영 좋지 않았지만 꿈 같은 기회를 그냥 날려버릴 수는 없었기에 꼭 참고 무대에 섰다. 그러나 결국 카메라 앞에서 경연 진행자에게 와락 토하고 말았다. 결국 우승의 영광은 휠체어에 앉아 신기한 마술 솜씨를 뽐낸 경쟁자 파피에게 돌아갔다. 탈락한 것도 서러운데, 온 동네 사람들이며 학교 친구들은 루이스를 ‘구토 소년’이라고 부르며 놀려댔다.

그런데 루이스에게 뜻밖의 기회가 다시 주어졌다. ‘파피 쇼’를 녹화하게 된 파피가 쇼에 딱 한 명 초대할 수 있는 게스트로 루이스를 선택한 것이다! 이게 꿈인가 생시인가, 얼떨떨해하던 루이스는 파피 쇼 녹화 날, 지난 결승의 아쉬움을 털어버리려고 다시 한 번 개그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했다. 실제 방송에서 루이스가 나오는 분량은 3분 남짓이라고 했지만 무려 세 시간이나 땀 흘려 녹화를 마쳤다. 대망의 방송 일이 다가오고, 루이스는 집에 놀러 온 메디와 엄마 아빠, 동생까지 소파에 꼭 붙어 앉아 파피 쇼를 기다렸다. 친척들은 물론이고 학교 전체에 루이스가 TV에 나온다는 소식이 이미 짝 깔린 상태였다. 저녁 5시, 마침내 쇼가 시작됐다. 그러나 30분이 다 지나도록 루이스의 모습은 코빼기도 볼 수 없었다. 통째로 편집된 것이다! 사전에 아무 연락도 없이, 녹화하면서 뭘 잘못된 것도 아닌데! 아파서 결승에서 떨어지고, 게스트로나마 출연하나 했더니 그것마저 편집되고,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된 일인냐며 자꾸만 묻고, 루이스는 하루하루가 정말 괴로웠지만 우울하게 웅크리고 있을 수는 없었다. 아무리 힘든 상황도 루이스의 흥 넘치는 일상을 막을 수는 없었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빼앗아버린 엄마아빠, 그리고 루이스와 똑똑한 여자친구의 반격!

『How to Train Your Parents(엄마아빠 훈련시키는 법)』, 『My Parents Are Out of Control(우리 엄마아빠가 제 정신이 아니에요)』, 『My Parents are Driving Me Crazy(우리 엄마아가 날 미치게 해요)』에 열세 살 말썽꾸러기 루이스와 부모님의 엇치락뒤치락 정신 없는 일상이 현실감 있게 그려진 네 번째 이야기에서, 코미디언을 꿈꾸는 루이스는 일이 자꾸만 꼬이고 제대로 풀리지 않자 다른 재미 거리를 찾느라 온종일 컴퓨터며 스마트폰 화면만 쳐다보며 지낸다. 처음에는 그러려니 하던 부모님은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심각하다고 판단하고, 대책을 세우기로 한다. 화면 앞에 뿌리라도 내린 듯 고정되어 있는 루이스와, 그런 형을 그대로 보고 배우는 동생에게서 컴퓨터와 디지털 기기를 아예 빼앗아버리기로 한 것이다. 태블릿, 휴대전화 전부 부모님이 정한 루이스의 ‘사용금지’ 목록에 포함되어버렸다. 가족끼리 같은 집에 살면서도 얼굴 보기가 너무 힘들다는 것이 엄마가 내민 이유였지만, 루이스는 용납할 수가 없었다. 지금이 어떤 세상인데 자유를 억압한단 말인가! 게다가 소셜미디어를 사용하지 않고는 개그 아이디어를 친구들에게 뽐내지도 못하는 데! 루이스는 반격을 준비하고, 이번에도 머리 좋은 여자친구 메디가 적극적으로 도와준다. 과연 두 사람은 고집불통인 엄마아빠를 꺾고 컴퓨터를 되찾을 수 있을까? 설 새 없이 폭소를 유발하는 루이스의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

<저자 소개>

피트 존슨(Pete Johnson)은 BBC 라디오에서 영화 평론가로 활동하다가 교사가 되었다. 이후 베스트셀러 『How to Train Your Parents』를 비롯해 40권이 넘는 책을 발표하여 ‘영 텔레그래프 어워드(Young Telegraph Award)’, ‘브릴리언트 북 어워드(Brilliant Book Award)’ 등 다양한 상을 수상했다.